

저자 인용 분석을 통한 한국 사회학의 국내문헌 의존도와 국외문헌 의존도 분석*

- 탈식민성 담론과 관련하여 -

Citation Dependency Analysis of Korean Sociology Using Author Citation Analysis

: Especially on the Discussion of Decolonization

김 영 기(Young-Gi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저자 최종학위 취득 국별 인용문헌 분석 |
| 1. 연구 목적 | 3. 저자 직업별 인용문헌 분석 |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논문 대상별 인용문헌 분석 |
| 3. 선행연구 고찰 | 5. 저자 전공 영역별 인용문헌 분석 |
| II. 한국 사회학에서 '미국적 사회학'의 문제 | IV. 결론과 함의 |
| III. <한국사회학> 인용문헌 분석 | |
| 1. 연도별 인용문헌 분석 | |

초 록

이 글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학에서 탈식민성 담론, 특히 '미국 사회학'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개괄한 다음, 이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한국사회학>에 최근 5년 동안 발표된 학술논문 21편과 여기에 실린 10,172편의 참고문헌을 대상으로 연도별·저자 최종학위 취득 국별·저자 직업별·논문 대상별·저자 전공 영역별 인용문헌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사회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상당히 국외문헌 지향적이며 문제 관심은 국내문헌에서 이끌어내고 있지만 이론적 자원은 거의 국외문헌에 의존하고 있었다. 2)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국외문헌 인용율이 크게 높게 나타나 최종학위 취득국과 외국문헌 인용율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3)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차 국외문헌 인용율이 높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분석을 통해 본 한국 사회학은 대외 의존성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학문적 재생산 방식이 국내의 문제관심을 외국이론에 적용해 보는 전형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주제어: 국내문헌의존도, 국외문헌의존도, 한국사회학, 인용분석, 탈식민성담론

ABSTRACT

This study is made as part of an attempt to explore the citation dependency in the field of Korean sociology. 213 articles by 136 authors i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by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issued in 2001~2005 were surveyed and their 10,172 references were analyzed.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ing: 1) Researchers in this field are fairly foreign literature oriented, and problem interest(sources of research ideas) was deriving from domestic literature, but theoretical resources was depending on foreign literature almost. 2) The foreign citation dependency of 'Foreign Doctor' appeared greatly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Doctor', therefore, the country of doctor' degree and the citation dependency was close correlation. 3) Foreign citation dependency appeared high even research to Korea society.

Key Words: Citation Dependency, Korean Sociology, Citation Analysis, Discussion of Decolonization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ykk@ks.ac.kr)

• 접수일: 2006년 11월 14일 • 최종심사일: 2006년 12월 11일 • 최종심사일: 2006년 12월 21일

I. 서론

1. 연구목적

사회학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간 및 인간을 둘러싼 사회사상(社會事象)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사회학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는 서구의 특정 사회일 수도 있을 것이며, 제3세계의 어느 마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회학을 한다고 했을 때 연구자가 주로 문제 삼는 분야는 당연히 한국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즉 한국 사회학은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가 살아온 사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현실을 설명해 주기를 기대할 것이며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사회학은 우리의 사회현실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이런 상식과 당위 앞에서 몇몇한가?

나는 이러한 물음을 안고 한국 사회학 분야의 다양한 문헌을 읽으면서 '탈식민성 담론'이라는 키워드를 적용하여 추적해 본 적이 있다.¹⁾ 그것은 이 분야에 문외한인 연구자로서 이와 같은 상식적인 물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제대로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수많은 탈식민성 담론 관련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지양(止揚)과(指向)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양의 측면에서는 표준미국사회학 교과서, 지배이데올로기의 동반자, 새마을의 사회학, 몰역사성·반민족성·반민중성, 소시민적 휴머니즘 등의 용어를 사회학분야 탈식민 담론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주관주의적·절충주의적·관념적 교조주의, 원전주의 편향(임영일), 소아마비 못 면한 사회학(김진균), 현실 적합성 없는 사회학(한완상), 백과전서식 한국사회학(고영복) 등의 표현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지향의 측면에서는 진보적·실천 지향적·노동적·민족적·민중적, 민중사회학, 분단사회학, 비판사회학 등의 용어와 함께, 실제의 역사적 현실에 끊임없이 접근하는 사회학(임영일), 우리문화의 주체성(김진균), 사회학의 현실지향성(고영복), 역사적 경험세계에 대한 보다 긴밀한 관련성의 획득, 우리문제에 대한 우리다운 문제제기와 해명(박영신), 우리사회의 현실적 관심사에 대한 자주적인 이론적 해석과 탐구의 방법(조희연·김동춘), 한국현실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한완상),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정립(신용하) 등의 표현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용어들 중 상당 부분은 한국 사회학의 중요한 학술적 개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1) 당시 이러한 물음을 한국 사회과학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한국 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을 추적하였으며, 그 결과는 초록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 작업은 김정근 교수의 지도하에 여러 연구자가 분과학문별로 분담하여 진행되었는데, 정치학·법학 분야는 이용재, 경제학 분야는 류준정, 행정학 분야는 이수상, 사회학·언론학·여성학·인류학 분야는 김영기, 사회복지학·교육학·문헌정보학 분야는 김종성이 각각 담당하였다(김정근 엮음, *한국 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식산업사, 2000).

1970년대 초반부터 싹트기 시작한 사회학 분야의 탈식민성 담론은 1980 년대를 넘어서면서 양적·질적으로 절정을 이루면서 하나의 대체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는 주류로서의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과 문제의식은 여전히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미국 사회학에 종속되어 있으며, 사회학계 내부의 인적 재생산 역시 미국 학위자들이 지배적이고 배타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³⁾ 이러한 사실은 한국 사회학 자체가 안고 있는 지식사회학적 문제의 두 차원으로서 한국 사회학계의 지식과 연구자의 재생산 구조가 미국적 사회학의 지배체제로 제도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구미 사회학이 정립해 놓은 이론으로 한국사회의 현실을 재단하는 것보다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사실과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탐구로부터 보편적인 이론화작업으로 나아가는 사회학이 아직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식과 분석시각이 우리사회의 뿌리로부터 유래하지 않을 때, 외래이론의 현실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체 학문적 종속성을 조장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학계의 지배적인 패러다임과 문제의식이 여전히 외래적이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실태는 어떠하며,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사회학 분야의 주된 담론 생산자들의 교육적 배경은 어떠한가? 그들 담론의 문제의식은 어디서 출발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석하는 근거로 제시된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특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담론 조차 외래적이지는 않은가? 이 글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한 사회의 지적 담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초록의 방법 외에도 해당 분야의 주제 전문가가 지적 변화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패턴의 경향과 변동 등을 분석하여 지적구조를 규명하거나, 그 사회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생산된 문헌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첫 번째의 방법은 한 사회의 전반적인 지적 담론을 한 사람의 전문가가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며,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의 경우 학술 잡지나 문헌의 인용 패턴은 분석이 용이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전 주제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회의 지적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 1994년 신용하가 한국사회학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졌던 취임강연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용하,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사회학, 제28집(1994), pp.1-15).

3) 윤상철, “미국 사회학의 지적 인적 지배와 ‘한국적 사회학의 지체,’” 학술단체협의회 위임, *우리 학문 속의 미국* (한울, 2003), p.185.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4호)

이는 연구자들이 생산한 문헌에는 해당 분야의 주제영역, 연구방법, 학과 주요 개념 및 정보이용 행태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 사회의 전반적인 주류 담론과 부차적 담론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영역별로 핵심 연구 분야와 상대적으로 소홀이 취급되고 있는 분야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학문 영역 간의 의존도와 영향력 등과 같은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술문헌은 각주나 참고문헌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상호 관련을 맺게 되는데, 이 때 인용하는 문헌과 인용된 문헌간의 관련성을 다루는 연구가 인용 분석이다. 특히 인용 분석 방법 중하나인 저자 동시인용 분석 방법은 학문의 지적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저자 동시인용 분석 방법은 1980년대에 소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각 학문 분야별로 이 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글은 앞서 제기된 물음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기 위해 인용문헌 분석을 시도한다. 인용문헌 분석의 대상으로 한국사회학회의 학회지인 <한국사회학>을 선정하였다. 한국사회학회는 1956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매년 2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전국 규모의 사회학대회 개최를 개최하는 등 명실 공히 우리나라 사회학 분야의 최대의 학회이다. <한국사회학>은 1964년 11월 제1집이 간행된 이래 2006년 현재 제40집 제2호까지 발간되었으며, 사회학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회지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해방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 사회학계 내부에서 '미국적 사회학'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에 대한 담론을 개관한 다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사회학>에 발표된 학술논문 213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인용문헌 분석과 저자 최종학위 취득 국별 인용문헌 분석, 저자 직업별 인용문헌 분석, 논문 대상별 인용문헌 분석, 논문 주제별 인용문헌 분석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탈식민성 담론과 관련하여 해석한다.

3. 선행연구 고찰

학문이란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것으로 새롭게 창조된 개념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학자들 사이에 수용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학문적 구조를 발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연구논문에 인용된 문헌의 인용패턴을 고찰하는 인용 분석은 접근하기 쉽고 편향됨이 없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어떤 문헌이 참고문헌에서 언급된다는 사실, 즉 인용된다는 사실은 인용된 문헌(cited document)과 인용하는 문헌(citing document)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용 분석은 이러한 주제적 관련성을 다루는 연구 분야로서, 한 분야 내에서 생산되고 이용되고 있는 문헌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색인, 초록 또는 잡지와 같은 정보원으로부터 추출한 인용문헌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학문적으로 일차 커뮤니케이션 조직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을

분석하여 인용하는 문헌과 인용되는 문헌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다.⁴⁾ 인용 분석은 과학자, 출판물, 학술기관의 질적 및 양적인 평가와 과학과 기술의 역사적 발전을 모델링하는 데에, 그리고 정보탐색과 검색에 적용될 수 있다.⁵⁾

인용문헌 분석은 1927년에 P. L. K. Gross와 E. M. Gross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도되기 시작하여⁶⁾ 학문 분야의 연구 활동 및 학문의 구조적 특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자들에 의해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인용 분석은 1960년대에는 인용계수의 분석과 서지결합법, 1970년대에는 문헌의 동시인용 분석, 그리고 1980년대에는 저자의 동시인용 분석으로 발전하였다.

우선 서지결합법은 1963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Kessler가 소개한 용어이다. 그는 여러 편의 논문이 한편 이상의 참고문헌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을 때, 이 논문들은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동시인용 분석이란 두 편의 논문 또는 두 명의 저자가 제3의 논문 또는 저자에게 동시에 인용될 때 이들 두 편의 논문 또는 두 명의 저자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으로, 이 밀접한 관계의 강도는 동시인용빈도에 따라 비례한다. 따라서 동시인용 분석은 주제 분야의 지적구조를 규명하거나 주제 분야 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연구전선의 발전과정과 지식의 역사적 발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식전반에 걸친 특색을 매핑(mapping)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⁷⁾

이 방법을 개별 학문 분야에 직접 적용한 초기 사례 연구로 미립자 물리학 분야의 문헌을 대상으로 한 Small의 연구⁸⁾와 Sullivan 등의 연구,⁹⁾ 생의학 분야의 Mullins 등의 연구¹⁰⁾를 들 수 있다.

1980년대에 White와 Griffith는 저자도 학문분야의 지적구조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문헌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¹¹⁾ 이들은 두 저자가 동시인용이 자주 될수록 두 저자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각 저자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변수로 저자의 동시인용 빈도수를 사용하여 저자동시인용 분석 방법에 의해 분류된 저자군집도 문헌동시인용 군집처럼 특정 학문분야의 하위주제영역을 나타낸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여기서의 저자는 저자 개인을 뜻하는 것

-
- 4) J. Martyn, "Citation Analysis," *Journal of Documentation*, vol.31(1975), pp.290-297.
 5) L. Egghe & R. Rousseau, *Introduction to Informetrics: Quantitative Methods in Library,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Elsevier, 1990.
 6) P. L. K. Gross & E. M. Gross, "College libraries and chemical education", *Science*, vol.66, no.1713(1927), pp.385-389.
 7) 김석영, "국내문헌의 저자동시인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vol.19(1988), pp.73-94.
 8) H. G. Small, "Cocitation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a new meas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ocuments," *JASIS*, vol.24(1973), pp.265-269.
 9) D. Sullivan & D. Koester, "Understanding rapid theoretical change in particle physics: a month-by-month co-citation analysis," *Proceedings of the ASIS Annual Meeting*, vol.16(1979), pp.276-285.
 10) N. C. Mullins, L. L. Hangens, P. K. Hecht & E. L. Kick, "The group structure of cocitation clusters: a comparative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2(1977), pp.552-562.
 11) H. D. White & B. C. Griffith, "Author co-citation: a literature measure of intellectual structure," *JASIS*, vol.32(1981), pp.163-171.

이 아니라 그 저자가 쓴 저작물의 총체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정보학 분야 저자를 대상으로 한 White와 Griffith의 연구,¹²⁾ 거시경제학 분야의 McCain,¹³⁾ 사회학 분야의 Bayer 등,¹⁴⁾ 유전학 분야의 McCain¹⁵⁾ 등이 있다.

국내의 저자 동시인용 분석은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 연구 사례로 사회학의 김영진,¹⁶⁾ 영양학의 김석영,¹⁷⁾ 화학 분야의 김현희,¹⁸⁾ 교육학의 김정자¹⁹⁾와 임형택,²⁰⁾ 정보검색분야의 서은경,²¹⁾ 경제학의 김도미,²²⁾ 한국사 영역의 조명희,²³⁾ 국어학 분야의 김하정,²⁴⁾ 경영학 분야의 민윤경,²⁵⁾ 문헌정보학 분야의 윤구호와 서말숙,²⁶⁾ 기록관리학 분야의 김희정²⁷⁾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편 A. D. E. Santo와 R. D. Walker는 인용문헌 분석법이 두 학문 분야 간 또는 여러 학문 분야 간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²⁸⁾ 이에 앞서 R. N. Broadus는 미국의 사회학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타 학문 분야 및 그 분야 문헌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과 타 분야 문헌의 특성간의 차이점을 구명하기 위하여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였다.²⁹⁾ 그 결과 미국의 사회학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타 학문 분야는 사회과학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 분야(61%)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최진무는 인용

12) *Ibid.*

13) K. W. McCain, "Longitudinal author cocitation mapping: the changing structure of macroeconomics," *JASIS*, vol.35(1984), pp.351-359.

14) A. E. Bayer, J. C. Smart & G. W. McLaughlin, "Mapping intellectual structure of science subfield through author cocitation," *JASIS*, vol.41(1990), pp.444-452.

15) K. W. McCain, "Mapping authors in intellectual space: a technical overview," *JASIS*, vol.41(1990), pp.433-443.

16) 김영진, "논문의 동시인용을 통한 지적구조의 규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vol.3(1986), pp.103-135.

17) 김석영, *한국 영양학 논문의 인용문헌 분석, 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1983.

18) 김현희, "저자들의 동시인용과 하위주제간 추이행렬시스템을 통한 주제문헌의 구조적 분석에 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vol.6(1989), pp.21-44.

19) 김정자, *동시인용분석법을 이용한 교육학 연구 경향 분석(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1).

20) 임형택, *한국교육과정 학문공동체의 학문활동 분석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2).

21) 서은경, "정보검색분야의 지적구조와 변화에 관한 연구: 영어문화권 저자들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vol.9(1992), pp.55-82.

22) 김도미, *저자동시인용 분석과 인용한 문헌의 색인어 분석에 의한 지적 구조의 규명: 경제학 분야를 대상으로(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3).

23) 조명희, *저자공인용분석에 의한 학문의 지적구조 연구: 한국사영역을 대상으로(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3).

24) 김하정, *저자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어학의 지적구조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95).

25) 민윤경, *저자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경영학 분야의 지적구조 규명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3).

26) 윤구호, 서말숙, "저자동시 인용분석에 의한 1990년대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32, no.3(2001), pp.169-197.

27) 김희정,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의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39, no.3(2005), pp.207-224.

28) A. D. E. Santo & R. D. Walker, "Measures of Interdisciplinary," *Proceeding of the ASIS*, vol.15(1978), p.278.

29) R. N. Broadus, "A Citation Study of Sociology," *American Sociologist*, vol.2(1967), pp.19-20.

문헌의 계량서지학 분석을 통하여 인류학 연구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규명하였다.³⁰⁾ 그 결과 인류학 연구자들의 해당 분야 의존도는 대체로 70%이며, 타 학문 분야 의존도는 30%임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이유를 인류학의 하위 주제들은 상호 고립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학문의 응집력 또는 통일성이 강하지 못하여 타 학문 분야의 문헌을 많이 이용한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김용성은 타 학문 분야 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철학, 사회학, 물리학의 학술지에 인용된 문헌을 조사하여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타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와 그 의존도는 학문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타 학문의 의존도가 높은 학문 분야별 순위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순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³¹⁾

II. 한국 사회학에서 '미국적 사회학'의 문제

이 부분은 한국 사회학계 내부에서 '미국적 사회학'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에 대한 개관이다.³²⁾ 한국의 사회학은 구한말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해방 이듬해에 서울대학교에 사회학과가 설치되었고, 1957년 한국사회학회가 창립됨으로써 분과학문으로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해방과 6.25를 거치면서 한국의 사회학은 민족주의 좌파적 지식인들의 몰락과 함께 그 고유한 비판적 성격을 잃고 상당기간 침체기를 맞게 된다. 이는 사회학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의 냉전구조 속에 편입되어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 시기는 사회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실판단조차 학자의 손을 떠나 정치적 권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해방직후에는 구미의 사회학이론을 일본학계에서 취사선택하여 해석한 것을 국내에 재수입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고,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미국사회학이 몰밀듯이 직수입되어 초창기 한국 사회학계의 공간을 모두 차지해 버리게 된다. 서구사회가 자신들의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론과 방법을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들여와서는, 그것으로 우리사회의 현상을 설명하고,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신용하는 이러한 보편성의 옷을 입은 사회학 이론과 개념들의 한국사회현실이나 역사적 경험과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한 바 있다.³³⁾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된 산업화, 즉 '조국근대화'의 이론적 지주로서 사회의 여러

30) Choi Jin Moo, *Bibliometric Analysis of Disciplinary Communication Patterns of Anthropology*. Ph. D. Dissertation (Rutgers University), 1986.

31) 김용성, 학문 분야 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89).

32) 이 부분은 김정근, 김영기의 "사회학 분야"(김정근 엮음, *한국 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지식산업사, 2000), pp.183-214)를 토대로 윤상철(앞의 글 pp.184-209)과 김필동("한국 사회이론의 과제와 전략 '토착화론'을 넘어서," *한국사회학*, 제36집 제2호(2002), pp.23-49)의 관련 논의를 덧붙여 작성되었다.

33) 신용하,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사회학*, 제28집(1994), p.3.

영역에서 나타난 사회과학 수요의 급증현상과 연계되어 고착되게 된다. 1960년대의 사회학은 크게 볼 때 근대화론과 이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을 다루는 조사방법론의 결합, 그 발전으로 특징 지워진다.

사회학을 포함한 한국의 사회과학은 1970년대까지 기본적으로 몰역사적 성격(또는 현장 부재성)을 가진다고 규정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사회학에 대한 학문이 깊어질수록 한국사회에 대한 해석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적 현실을 역사적 구조적 사실로 보지 못했던 조건을 김진균은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맹목적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제약, 미국적 이론의 무비판적 수용, 그리고 과거의 실상을 은폐하려는 세력의 존재가 그것이다.³⁴⁾

1970년대 후반기 공업화의 결과 사회계층 또는 사회계급이 정형화되기 시작하고 그들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회과학은 잃었던 비판적 기능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통합과 균형을 강조하는 구조기능론으로부터 긴장과 변동을 강조하는 갈등론으로 관심이 확대³⁵⁾ 되었는데, 한국 사회학에 있어서의 탈식민성 담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비판사회학 또는 진보적 사회학의 이름을 내걸고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담론은 1970년대 중반 미국의 '표준사회학'과 그것의 대표적인 표방인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과 부정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³⁶⁾

이와 같은 '주류사회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은 사회과학의 다른 분과학문과는 달리 한국사회학계의 주류에 해당하는 '한국사회학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는 사회과학 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1973년의 춘계대회가 그것이다. 그 자리에는 정치학, 경제학 및 심리학에서도 같이 참여하여 한국사회를 분석 연구하는데 있어서 서구이론의 유용성과 그 적용의 문제점들이 논의되었으며, 그 내용이 한국사회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사회학》 특집호(8집, 1973)로 발간되었다. 여기에는 오갑환의 「사회학이론의 보편성문제」와 김대환의 「한국사회학의 정향을 위한 좌표 - 사회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실려 있는데, 이 두 편의 글이 우리나라 사회학계에서 나타난 탈식민담론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4) 김진균, "한국사회학, 그 몰역사성의 성격," *사회과학과 민족현실* (한길사, 1988), pp.40-44.

35) 김진균, "한국 사회과학의 현재적 과제," *사회과학과 민족현실* (한길사, 1988), pp.18-22.

36)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다른 관점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이 이전에도 1960년대 중반기를 전후하여 서구이론의 일방통행적 직수입에 대한 반성으로 '학문의 토착화', '사회과학의 한국화' 등에 관련된 논의가 있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학문적 당위성에 대한 명분론의 나열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론을 발전시키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을 반론으로 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한국사회학회의 1972년도 춘계사회학대회를 한국 사회학계에서 일어난 탈식민성 담론의 출발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대회는 '한국사회과학의 반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경제학과 사회학, 정치학과 사회학, 역사학과 사회학 등 세 가지 분과토론의 양식을 갖추고, 사회학은 물론 한국의 사회과학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대회는 사회학을 중심에 두고는 있지만 사회과학 일반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학의 탈식민담론의 출발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보다 사회학 내부의 문제에 치중한 1973년도의 한국사회학대회를 그 출발점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1972년도 한국사회학대회의 토론 내용은 김성국·임현진, "한국사회와 사회과학," *한국사회학*, 제7집(1972), pp.85-96쪽에 요약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글들을 한국 사회학의 본격적인 탈식민담론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시 편집자의 지적대로 토론의 취지를 사회자나 발표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개념 자체도 정립되지 못한 상태였다.³⁷⁾ 그렇지만 한국사회학회의 1973년 춘계대회는 ‘한국 사회학이 한국사회의 설명과 분석에 적합한 사회학이론의 발전에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한국사회학계의 본격적인 탈식민성 담론은 10년이나 되는 기나긴 지적우회의 과정을 겪은 다음인 198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임영일의 분석에 따르면 그것 역시 사회학적 인식의 자기전개 위에서의 결실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학이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이기를 요구하는 80년대의 객관적 사회조건의 변화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다.³⁸⁾

이 시기부터 사회학계의 대표적 학술지라 할 수 있는 《한국사회학》(한국사회학회)을 비롯하여, 《현상과 인식》, 《산업사회연구》(한국산업사회연구회), 《사회비평》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기존 사회학을 반성하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한국 사회학계의 탈식민성 담론이 1980년대 초반부터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와 그 이후의 대표적인 탈식민성 담론들로서는, 《한국사회학》 17집(1983)에서 ‘사회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특집 속에 포함된 고영복의 「한국사회의 발전과 사회학」과 권태환의 「사회학방법론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산업사회연구》 1집(1985)에 실린 김진균의 「80년대 한국사회학의 과제」, 《현상과 인식》 9권 1호(1985)에 실린 박영신의 「사회학연구의 사회학적 역사」, 《사회비평》 10호(1993)에 실린 김호기의 「한국 비판사회학의 회고와 전망」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담론들을 모은 단행본들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는데, 김진균의 『비판과 변동의 사회학』(한울, 1983)과 『사회과학과 민족현실 I·II』(한길사, 1988·1992), 한완상의 『민중사회학』(종로서적, 1984)과 『한국현실 한국사회학』(범우사, 1992), 학술단체연합회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역사비평사, 1988), 김진균·조희연이 엮은 『한국사회론 - 현대한국사회의 구조와 역사적 변동』(한울, 1990), 그리고 한국산업사회연구회의 『현대한국 인문사회과학 연구사』(한울, 1995) 등이 그것이다.

한국의 사회학분야에 있어서 탈식민성 담론의 핵심 담론자로는 우선 김진균을 꼽을 수 있다. 그는 한국사회학의 몰역사성·반민족성·반민중성을 집중적으로 해부한 다음, 그 대안으로 민족적·민중적 학문을 제창하고 있다. 임영일과 조희연 등도 같은 계열의 후속 담론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맑스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서구의 메타이론에 기댈 우려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민중사회학과 분단사회학이라는 새로운 문제제기를 통

37) 이와 관련하여 1970년대의 이른바 민중사회학과 분단사회학은 모두 현실에 대한 당위론적 비판과 도덕적 비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비판적 자유주의’ 혹은 ‘소시민적 휴머니즘’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상철 앞의 글, p.188).

38) 임영일, “사회학연구의 동향과 과제,”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역사비평사, 1988), p.115.

해 한국 사회학의 현실적합성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는 한완상 또한 이 분야의 핵심담론 자임에 틀림없다. 그는 미국표준사회학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분단사회학과 반민주적 통치기구·이데올로기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민주사회학을 내놓고 있지만, 과학이라기보다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소박한 당위론적 비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한국사회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신용하 역시 학문적 자주성과 실사구시의 사회학을 통한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정립을 주장하고 나서, 그 자신이 한국 사회학계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무게로 인해 핵심담론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젊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핵심담론자들의 주위에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Ⅲ. <한국사회학> 인용문헌 분석

앞서 학문적 연구 활동을 현실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즉 사회 현실에 긴밀하게 결합된 연구방식을 유지해온 흐름을 살펴보았지만,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여전히 미국 사회학적 연구경향과 관심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 요인으로, 사회학과 사회학 연구자들의 현실적 조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점, 이념주의적, 이론주의적 편향성, 진보적 사회학 특유의 배타성이 사회학 내부의 미국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 진보적 사회학이 해낼 수 있었던 사회학적 과제들에 대한 현실적 역량 이상의 과도한 기대, 사회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과도한 대외활동 등이 지적되고 있다.³⁹⁾

만약 그렇다면 한국 사회학계의 외래적 패러다임과 문제의식의 구체적인 실태는 어떠하며,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사회학 분야 연구자 집단의 재생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연구자들의 교육적 배경은 어떠한가? 그들 담론의 문제의식은 어디서 출발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석하는 근거로 제시된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특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담론조차 외래적이지는 않은가?

인용행위의 구체적인 증거물로서 연구성과물에 첨부되는 참고문헌 리스트는 연구자와 연구자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정보환경적, 국제적 지식체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특정 사회의 사회적 산물로서, 참고문헌 분석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⁴⁰⁾

이 부분에서는 사회학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회지인 <한국사회학>을 대상으로

39) 윤상철, 앞의 글, pp.190-193.

40) 김갑선, "참고문헌의 동시공존현상 -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인용동기와 참고문헌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4호(2002), p.68.

인용문헌 분석을 시도한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사회학>에 136명의 저자에 의해 발표된 학술논문 213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인용문헌 분석과 저자 최종학위 취득 국별 인용문헌 분석, 저자 직업별 인용문헌 분석, 논문 대상별 인용문헌 분석, 논문 주제별 인용문헌 분석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모든 분석은 공저자가 있는 경우 제1저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1. 연도별 인용문헌 분석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사회학>에는 136 명의 저자에 의한 213 편의 학술논문이 게재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모두 10,172개의 참고문헌이 첨부되어 있다. 이를 연도별로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연도별 인용문헌 분석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논 문 수	38	50	49	44	32	213
국내 참고문헌 수	483	871	776	652	603	3385
국외 참고문헌 수	1180	1395	1510	1598	1104	6787
참고문헌 합계	1663	2266	2286	2250	1707	10172
편당 국내 참고문헌 수	12.71	17.42	15.84	14.82	18.84	15.89
편당 국외 참고문헌 수	31.05	27.90	30.82	36.32	34.50	31.86
편당 참고문헌 합계	43.76	45.32	46.65	51.14	53.34	47.76
국내 참고문헌 비율	0.29	0.38	0.34	0.29	0.35	0.33
국외 참고문헌 비율	0.71	0.62	0.66	0.71	0.65	0.67

<표 1>에 따르면 학술논문 한 편당 약 48개의 참고문헌이 달려 있으며, 이 중 국내문헌은 평균 약 16건, 국외문헌은 약 32건인 셈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문헌을 참고한 경우가 3,385건, 국외문헌을 참고한 경우가 6,787건으로, 국내문헌 인용율은 33%, 국외문헌 인용율은 67%에 해당한다. 즉 국외문헌을 국내문헌보다 두 배 정도 더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상당히 국외문헌 지향적임을 알 수 있다.⁴¹⁾ 이 중에서 특히 미국 문헌이 60%를 상회한다는 사실은 한국

41) 이와 관련하여 정진식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5년간의 한국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글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영어권 문헌 인용율이 68%인데 비해 한국어 문헌은 30.3%로 영어권 문헌의 약 절반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다음, 우리 나라의 학문이 아직도 이론이 빈곤하고 방법론의 비과학성을 면치 못한 채, 지나치리만큼 외국문헌에 의존해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정진식,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1), p.60).

한편 홍기철은 문헌정보학분야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글에 따르면, 3205건의 자료를 언어별로 구분해 본 결과, 국내자료는 713건으로 전체의 22.25%를 차지하고, 동양자료는 128건으로 3.99%, 서양자료는 2364건으로 전체의 73.76%를 차지하고 있어 서양자료의 이용이 다른 자료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홍기철, “문헌정보학분야의 외국학술잡지 이용빈도와 이용분포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1), p.41).

사회학의 대미 종속의 심도를 추측하게 한다.⁴²⁾

한국의 연구자들이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국외에서 생산된 국외지식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과학의 지식이라는 것이 특정 시대, 특정 사회와 특정 사람들에 근거하여 구축된 지식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인 특정성과 지역성을 갖는다고 볼 때,⁴³⁾ 한국 사회학자들의 국외문헌 지향성의 배경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조사와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 예로 연구자들이 연구의 문제의식 혹은 이론적 관심을 어디에서 끌어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론에서 인용되고 있는 국내 문헌의 인용 비율을 보면 57.7%(국내 박사), 40.1%(미국 박사)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존 이론을 검토하는 두 번째 장의 국내 문헌의 인용 비율을 보면, 37.1%(국내 박사), 26.6%(미국 박사)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제관심은 국내 문헌에서 이끌어내는 반면, 이론적 자원은 거의 미국문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학의 학문적 재생산의 방식이 국내의 문제관심을 외국이론에 적용해보는 전형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2. 저자 최종학위 취득 국별 인용문헌 분석

다음은 저자의 최종학위 취득국과 논문의 국내·국외 문헌 인용율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저자 최종학위 취득 국별 인용문헌을 분석해 보았다. 저자의 최종학위 취득국은 논문에 소개된 저자 약력을 주로 참고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자 정보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아래 <표 2>는 저자 최종학위 취득 국별 인용문헌을 분석한 것으로, 저자가 아닌 논문을 중심으로 삼았다

<표 2> 저자 최종학위 취득 국별 인용문헌 분석

최종학위 취득국	한국	외국						소계	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저자 수	39	71	18	4	2	1	1	97	136
논문 수	61	121	23	4	2	1	1	152	213
국내 참고문헌 수	1245	1692	377	63	5	3	0	2140	3385
국외 참고문헌 수	1676	4046	740	180	67	21	57	5111	6787
참고문헌 합계	2921	5738	1117	243	72	24	57	7251	10172
편당 국내 참고문헌 수	20.41	13.98	16.39	15.75	2.50	3.00	0.00	14.08	15.89
편당 국외 참고문헌 수	27.48	33.44	32.17	45.00	33.50	21.00	57.00	33.63	31.86
편당 참고문헌 합계	47.89	47.42	48.57	60.75	36.00	24.00	57.00	47.70	47.76
국내 참고문헌 비율	0.43	0.29	0.34	0.26	0.07	0.13	0.00	0.30	0.33
국외 참고문헌 비율	0.57	0.71	0.66	0.74	0.93	0.88	1.00	0.70	0.67

42) 윤상철, 앞의 글, p.202.

43) 김갑선, 앞의 글, pp.22-23.

44) 윤상철, 앞의 글, p.202.

〈표 2〉에서 저자별 최종학위 취득국을 보면 국내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는 39명, 외국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는 97명으로, 국외학위 취득율이 71.3%에 이르고 있다. 국외학위 취득자 중에서 특히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약 73.2%로 전체 연구자의 반 이상(52.2%)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논문을 중심으로 보면 국내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저자의 논문은 61편, 국외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저자의 논문은 152편으로, 각각 28.6%와 71.4%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미국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121건으로서 외국 학위 취득자의 79.6%, 전체의 56.8%에 이른다.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따라서 이들에 의해 발표된 학술논문이 많은 점은 이들의 해당 언어와 해당국 문헌의 친숙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외 참고문헌 수와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논문과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논문에서, 논문 한 편당 참고문헌 수는 각각 47.89편과 47.70편으로 별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지만, 국내 참고문헌과 국외 참고문헌의 비율을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논문에는 국내 참고문헌과 국외 참고문헌 비율이 43%와 57%로 나타났지만,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논문에는 국내·외 참고문헌의 비율이 30%와 70%로 국외문헌의 비중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통계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종학위 취득국과 외국문헌의 인용율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적 사회학의 지배가 강화되면서 미국 사회학과의 근접성이 연구자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비판은 그 대상과 일정한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필요로 하는 법이다.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러한 사실을 자기 정체성으로 구성하고 있는 연구자가 미국이나 미국 사회학과 거리 두기는 쉽지 않다. 미국 혹은 미국 사회학과의 연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에 대한 비판이나 한미관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또한 어려워진다는 것이 사회학계 내부의 판단이다.⁴⁵⁾

3. 저자 직업별 인용문헌 분석

저자 직업과 국내외 문헌 인용율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저자 직업별 인용문헌을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213편의 논문 중 2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교수, 강사, 연구원 등의 연구를 전문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으며, 전문 실무자의 글은 단 두 편에 지나지 않았다.⁴⁶⁾ 다만

45) 윤상철, 앞의 글, pp.186-187.

46) 여기서 제1저자의 소속이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정책통계과와 성공회 나눔의 집으로 되어있는 두 경우의 저자의 직업을 실무자로 분류하였다.

이들의 경우 다른 일반 연구자들과는 반대로 국내문헌 인용율이 현격히 높았지만, 이를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차이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⁴⁷⁾

〈표 3〉 저자 직업별 인용문헌 분석

저자 직업	교수	기타				계
		강사	연구원	실무자	계	
논문 수	141	14	56	2	72	213
국내 참고문헌 수	2113	233	971	68	1272	3385
국외 참고문헌 수	4533	526	1701	27	2254	6787
참고문헌 합계	6646	759	2672	95	3526	10172
편당 국내 참고문헌 수	14.99	16.64	17.34	34.00	17.67	15.89
편당 국외 참고문헌 수	32.15	37.57	30.38	13.50	31.31	31.86
편당 참고문헌 합계	47.13	54.21	47.71	47.50	48.97	47.76
국내 참고문헌 비율	0.32	0.31	0.36	0.72	0.36	0.33
국외 참고문헌 비율	0.68	0.69	0.64	0.28	0.64	0.67

4. 논문 대상별 인용문헌 분석

사회과학 논문은 크게 이론적 논문과 실증적 논문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학은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대상의 공간적 배경이 명확한 편이고, 따라서 한국 사회학은 한국의 사회를 그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실증적 논문을 그 분석 대상에 따라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논문과 외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논문, 그리고 국가간 비교를 수행한 논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국내의 참고문헌 인용율을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면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44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론연구가 36편, 외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9편, 국가간 비교를 수행한 논문이 14편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론연구의 경우 논문 한 편당 국내문헌은 9.4편을, 국외문헌은 34.8편을 인용하고 있어 그 비율은 각각 21%와 79%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학 이론연구의 경우 외국 이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준다. 이런 경향은 외국 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국가간 비교를 수행한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논문 한 편당 국내문헌은 18.3편을, 국외문헌은 27.7편을 인용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각각 40%와 60%에 해당한다.⁴⁸⁾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문헌 인용율이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를 대상으

47) 참고로 학위 취득국과 전임 비전임 교수의 비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임교수의 비율이 미국과 영국이 높은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한국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윤상철, 앞의 글, pp.195-196).

48) 여기에 추가로 각각의 참고문헌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즉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인용되었는지,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청된다.

로 하면서도 국외문헌 인용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외국 이론의 과도한 수용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해석할 이론의 부재 또는 빈곤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4〉 논문 대상별 인용문헌 분석

논문대상	이론연구	한국사회	외국사회	국가간 비교	계
논문 수	36	144	19	14	213
국내 참고문헌 수	339	2640	128	278	3385
국외 참고문헌 수	1254	3982	896	655	6787
참고문헌 합계	1593	6622	1024	933	10172
편당 국내 참고문헌 수	9.42	18.33	6.74	19.86	15.89
편당 국외 참고문헌 수	34.83	27.65	47.16	46.79	31.86
편당 참고문헌 합계	44.25	45.99	53.89	66.64	47.76
국내 참고문헌 비율	0.21	0.40	0.13	0.30	0.33
국외 참고문헌 비율	0.79	0.60	0.88	0.70	0.67

5. 저자 전공 영역별 인용문헌 분석

마지막으로 저자의 세부 전공별 문헌인용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사회학의 세부 전공은 학자들 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누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음 〈표 5〉와 같이 10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족/노인/여성/세대연구 분야, 정보사회학 분야, 정치사회학/사회운동 분야 등에서 국내문헌 인용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저자의 세부 전공에 따른 국내외 문헌 인용율의 의미 있는 차이를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5〉 저자 세부 전공별 인용문헌 분석

저자 세부 전공	논문 수	국내 참고문헌 수(%)	국외 참고문헌 수(%)	참고문헌 합계	편당 국내 참고문헌 수	편당 국외 참고문헌 수	편당 참고문헌 합계
사회학이론/사회사상	26	338(23)	1,105(77)	1,443	13.00	42.50	55.50
사회사/역사사회학	14	269(34)	529(66)	798	19.21	37.79	57.00
경제사회학/조직론	21	262(31)	595(69)	857	12.48	28.33	40.81
산업사회학/노동사회학	32	444(29)	1,100(71)	1,544	13.88	34.38	48.26
사회계층/계급/관계망	8	122(34)	239(66)	361	15.25	29.88	45.13
가족/노인/여성/세대연구	46	825(43)	1,080(57)	1,905	17.93	23.48	41.41
정치사회학/사회운동	20	419(39)	644(61)	1,063	20.95	32.20	53.15
문화/환경/지역사회학	28	389(28)	978(72)	1,367	13.89	34.93	48.82
정보사회학	13	257(43)	338(57)	595	19.77	26.00	45.77
복지/교육	5	60(25)	179(75)	239	12.00	35.80	47.80
계	213	3,385(33)	6,787(67)	10,172	15.89	31.86	47.75

IV. 결론과 함의

지금까지 한국 사회학에서 탈식민성 담론, 특히 '미국 사회학'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개괄한 다음, 이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한국사회학>에 최근 5년 동안 발표된 학술논문 213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인용문헌 분석과 저자 최종학위 취득 국별 인용문헌 분석, 저자 직업별 인용문헌 분석, 논문 대상별 인용문헌 분석, 논문 주제별 인용문헌 분석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학>에 실린 학술논문은 한 편당 약 48개의 참고문헌이 달려 있으며, 이 중 국내 문헌은 평균 약 16건, 국외문헌은 약 32건으로, 국내문헌 인용율은 33%, 국외문헌 인용율은 67%로 나타났다. 이는 국외문헌을 국내문헌보다 두 배 정도 더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상당히 국외문헌 지향적임을 보여 주었으며, 이 중에서 특히 미국 문헌이 60%를 상회한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학의 대미 종속의 심도를 가늠하게 한다.

또한 연구자들이 연구의 문제의식 혹은 이론적 관심을 끌어오는 서론 부분에서 인용되고 있는 국내 문헌의 인용 비율은 57.7%(국내 박사), 40.1%(미국 박사) 정도로 나타난 반면, 기존 이론을 검토하는 두 번째 장의 국내 문헌의 인용 비율은 37.1%(국내 박사), 26.6%(미국 박사) 정도로, 문제관심은 국내 문헌에서 이끌어내고 있지만 이론적 자원은 거의 미국문헌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학의 학문적 재생산의 방식이 국내의 문제관심을 외국이론에 적용해보는 전형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저자별 최종학위 취득국을 보면 국내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는 39명, 외국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는 97명으로, 국외학위 취득율이 71.3%에 이르고 있으며, 국외학위 취득자 중에서 특히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가 약 73.2%로 전체 연구자의 반 이상(52.2%)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논문에는 국내 참고문헌과 국외 참고문헌 비율이 43%와 57%로 나타났지만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논문에는 국내·외 참고문헌의 비율이 30%와 70%로 국외문헌의 비중이 크게 높게 나타나 최종학위 취득국과 외국문헌의 인용율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셋째, 저자의 직업별 인용문헌 분석에서 강단보다는 현장 실무자의 글에서 국내문헌의 인용율이 현격히 높게 나타났지만, 표본이 너무 적어 일반적 경향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아울러 저자의 전공 영역별 인용문헌 분석에서도 인용율의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넷째, 논문의 대상별 인용문헌 분석에서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44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론연구가 36편, 외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19편, 국가간 비교를 수행한 논문이 14편으로 나타났다. 이론연구의 경우 논문 한 편당 국내문헌은 9.4편을, 국외문헌은 34.8편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사회학 이론연구의 경우 외국 이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차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의 인용 비율이 각각 40%와 60%로 나타나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국외문헌 인용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외국 이론의 과도한 수용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해석할 이론의 부재 또는 빈곤으로 해석되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국 사회학은 대외 의존성을 탈피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자생적 학문생산 기반이 취약한 채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사회학계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인적 재생산구조에 대한 것으로서, 국내 학위자 중심의 학자 양성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 학문의 식민지성을 극복하고 자생적 학문, 주체적 학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문의 대외의존성 내지 식민지성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은 학자의 양성과 충원이 식민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한 학문의 내용 역시 식민지성을 탈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⁴⁹⁾

참 고 문 헌

- 김갑선. “참고문헌의 동시공존현상: 한국사회과학자들의 인용동기와 참고문헌의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제36권 제4호(2002), pp.21-47.
- 김도미. 저자동시인용 분석과 인용한 문헌의 색인어 분석에 의한 지적 구조의 규명: 경제학 분야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3.
- 김석영. 한국 영양학 논문의 인용문헌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83.
- 김석영. “국내문헌의 저자동시인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제19집(1988), pp.73-94.
- 김성국, 임현진. “한국사회와 사회과학.” 한국사회학. 제7집(1972), pp.85-96.
- 김영진. “논문의 동시인용을 통한 지적구조의 규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8집(1986), pp.103-135.
- 김용성. 학문 분야 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89.
- 김정근 엮음.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식산업사, 2000.
- 김정자. 동시인용분석법을 이용한 교육학 연구 경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1.
- 김지훈. “참조연결을 위한 인용정보 자동추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3), pp.247-268.
- 김진균. “한국 사회과학의 현재적 과제.” 사회과학과 민족현실, 한길사, 1988. pp.18-27.

49) 신정완, “주체적 학자 양성의 필요성과 방안” 학술단체협의회 엮음, *우리 학문 속의 미국* (한울, 2003), pp.371-372.

- 김진균. “한국 사회학, 그 물역사성의 성격,” 사회과학과 민족현실. 한길사, 1988. pp.28-52.
- 김필동. “한국 사회이론의 과제와 전략: ‘토착화론’을 넘어서” 한국사회학 제6집 제2호(2002), pp.23-49.
- 김하정. 저자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어학의 지적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995.
- 김홍렬. “과학기술문헌의 인용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4호(2003), pp.1-21.
- 김홍렬. “생명과학 학술지의 인용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2005), pp.85-102.
- 김희정.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외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5), pp.207-224.
- 김현희. “저자들의 동시인용과 하위주제간 추이행렬시스템을 통한 주제문헌의 구조적 분석에 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제6집(1989), pp.21-44.
- 민윤경. 저자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경영학 분야의 지적구조 규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3.
- 바라바시, A. L. 링크: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서울: 동아시아 2002.
- 서은경. “정보검색분야의 지적구조와 변화에 관한 연구: 영어문화권 저자들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9집(1992), pp.55-82.
- 서은경.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와 JASIS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1997), pp.269-291.
- 신용하.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사회학, 제28집(1994), pp.1-15.
- 신정완. “주체적 학자 양성의 필요성과 방안.” 학술단체협의회 위임, 우리 학문 속의 미국. 한울, 2003. pp.371-391.
- 역사문제연구소 편. 학문의 길 인생의 길. 서울: 역사문제연구소, 2000.
- 오세훈.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과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5.
- 윤건차. 현대 한국의 사상 흐름: 지식인과 그 사상. 서울: 당대 2000.
- 윤구호. “계량서지학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정보관리연구, 제20집, pp.1-29.
- 윤구호, 서말숙. “저자동시 인용분석에 의한 1990년대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2001), pp.169-197.
- 윤상철. “미국 사회학의 지적 인적 지배와 ‘한국적 사회학’의 지체.” 학술단체협의회 위임, 우리 학문 속의 미국. 한울, 2003. pp.184-209.
- 이인순. 인용분석을 통한 의화도서관 정기간행물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3.

- 이한우. 우리의 학맥과 학풍. 서울: 문예출판사, 1995.
- 임영일. "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역사비평사, 1988. pp.113-135.
- 임형택. 한국교육과정 학문공동체의 학문 활동 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2.
- 정진식.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1), pp.55-78.
- 조명희. 저자공인용분석에 의한 학문의 지적구조 연구: 한국사영역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3.
- 조현양. "인용분석을 통한 웹사이트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2003), pp.225-240.
- 최희근.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 - LISA & ISA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3), pp.61-79.
- 홍기철. "문헌정보학분야의 외국학술잡지 이용빈도와 이용분포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1), pp.35-54.
- Bayer, A. E., J. C. Smart and G. W. McLaughlin. "Mapping intellectual structure of science subfield through author cocitation." *JASIS*. vol.41(1990), pp.444-452.
- Broadus, R. N. "A Citation Study of Sociology." *American Sociologist*. vol.2(1967), pp.19-20.
- Choi, Jin Moo. *Bibliometric Analysis of Disciplinary Communication Patterns of Anthropology*. Ph. D. Dissertation(Rutgers University), 1986.
- Cronin, B., H. Snyder and H. Atkins. "Comparative citation ranking of authors in monographic and journal literature: a study of sociology." *Journal of documentation*. vol.53, no.3 (1997), pp.263-273.
- Dulle, F. W. et al. "Creating a core journal collection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Tanzania: citation analysis and user opinion techniques." *Library Review*. vol.53, no.5(2004), pp.270-277.
- Egghe, L. and R. Rousseau. *Introduction to Informetrics: Quantitative Methods in Library,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Elsevier, 1990.
- Garfield, E. *Citation Indexing : Its Theory and Application in Science, Technology and Humanities*. New York: Wiley, 1973.
- Ginn, Linda K. "Citation Analysis of Authored Articles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001-2002," *Mississippi Libraries*. vol.67, no.4(2003), pp.106-109.
- Griffiths, A. et al. "The Aging Scientific Literature: a Citation Analysis." *Journal of*

- Documentation*, vol.35(1979), pp.179-196.
- Gross, P. L. K. and E. M. Gross. 1927. "College libraries and chemical education." *Science*, vol.66, no.1713(1927), pp.385-389.
- Martyn, J. "Citation Analysis." *Journal of Documentation*, vol.31(1975), pp.290-297.
- McCain, K. W. "Longitudinal author cocitation mapping: the changing structure of macroeconomics." *JASIS*, vol.35(1984), pp.351-359.
- McCain, K. W. "Mapping authors in intellectual space: a technical overview." *JASIS*, vol.41(1990), pp.433-443.
- Mullins, N. C., L. L. Hangens, P. K. Hecht and E. L. Kick. "The group structure of cocitation clusters: a comparative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2(1977), pp.552-562.
- Santo, A. D. E. and R. D. Walker. "Measures of Interdisciplinary." *Proceeding of the ASIS*, vol.15(1978), p.278.
- Small, H. G. "Cocitation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a new meas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ocuments." *JASIS*, vol.24(1973), pp.265-269.
- Sullivan, D. and D. Koester. "Understanding rapid theoretical change in particle physics: a month-by-month co-citation analysis." *Proceedings of the ASIS Annual Meeting*, vol.16(1979), pp.276-285.
- White, H. D. "Author co-citation analysis: overview and defense." In *Scholarly Communication and Bibliometrics*, ed by Christine L. Borgma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1990. pp.84-106.
- White, H. D. and B. C. Griffith. "Author co-citation: a literature measure of intellectual structure." *JASIS*, vol.32(1981), pp.163-171.